자비·지혜 담은 불교 AI 윤리선언

B6면에 이어

반면 기성세대는 여전히 스님이 직접 전하는 법문을 선호한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불교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불교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박훈:**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AI는 신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적 상담과 수행은 인간적 체험과 공동체적 연대가 핵심이다. AI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전통적 수행과 공동체 신행의 가치를 잃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상담도 수행도 AI로

▶**사회자:** 코로나19 이후 명상 앱이나 AI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예가 늘고 있다.

▶**보일 스님:** 이미 많은 이들이 AI를 통해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고 있다. 연애, 직장, 가족 문제와 같은 사적인 고민은 물론이고, 삶의 의미나 죽음과 같은 철학적 질문도 AI에게 던진다. 조사에 따르면, AI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인생 상담'을 목적으로 AI를 활용한다. AI가 지식 검색을 넘어, 정서적 의존의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계도 몇 년 전부터 챗봇 상담이나 명상 앱을 도입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상담과 수행은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동안은 스님과 직접 만나 상담하고, 도반들과 함께 수행하며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 속 AI와 대화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변화를 외면한다면 신도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화행:** 특히 젊은 세대는 AI를 일상적인 대화 상대이자 정서적 상담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불교는 이러한 변화를 불교 친화적으로 접목해야 한다. 예컨대 불교 교리에 기반한 상담 챗봇, 불교 수행 전통을 반영한 명상 앱은 충분히 가능하며 신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박훈:** 불교에서 상담과 수행은 지혜와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AI는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그것이 곧 지혜라고 볼 수는 없다. 불교적 상담은 내면을 성찰하고, 삶을 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호흡법이나 명상법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수행자는 직접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스님과의 상담이나 직접 수행과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지승도:** AI 상담의 가장 큰 한계는 정확성과 검증 문제다. 불교 상담은 바른 앎과 바른 논증을 전제로 한다. AI 상담을 도입하더라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AI 상담의 답변을 일정 부분 검토하고, 오류 가능성을 신도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9월 12일 현대불교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종교계의 AI 활용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짚고 불교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사진=김내영 기자

신행공동체 '재구성'

▶**사회자:**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보일 스님:** AI 상담과 수행의 확산은 신도들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다. 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신도들도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 상담과 명상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불교 포교와 신행 확산에 긍정적일 수 있다. 동시에 공동체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화행:** 공동체가 단절되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온라인 법회와 메타버스 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AI 상담과 수행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박훈:** 저 역시 공동체의 변화에 주목한다. AI 상담이 보편화되면 신도들이 절에 오지 않고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절과 스님의 역할을 축소시킬 위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절은 AI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즉 수행 체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지승도:** 공동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다만 AI 상담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신도들이 깊은 수행보다는 즉각적 답변에 의존하는 습관을 보일 수 있다. 불교적 지혜 추구와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AI의 장점을 살리되, 그 한계와 위험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AI 리터러시 · 가이드라인 구축

▶**사회자:** AI가 확산되는 현실에서, 불교계는 어떤 리터러시(문해력 교육)와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나?

▶**보일 스님:** 기술적인 차원은 전문가들이 주도할 문제다. 하지만 불교계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철학적·윤리적 방향성이다. 불교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AI를 단순한 도구로만 볼지, 아니면 하나의 새로운 주체로 인정할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무아(無我) 사상은 AI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AI가 자아를 갖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결국 불교계는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AI시대에 불교적 수행과 공동체의 원칙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리터러시를 기술 교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철학적·윤리적 성찰과 연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화행:** 종단 차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불교대학 교양과목에 'AI 이해와 활용'을 포함하고, 사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AI를 잘 쓰자'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

가이드라인은 크게 세 가지 원칙을 담아야 한다. 첫째, AI는 상담과 수행을 돕는 보조 도구이지 수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원칙이다. 둘째,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신도 교육을 통한 리터러시 확산이다.

AI는 종교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불교계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종교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불교의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은 AI시대의 윤리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지승도:**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질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기에, AI 상담이나 법문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지를 검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불교 논리학의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AI가 제공하는 답변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계의 AI 리터러시는 불교 전통의 철학과 논리학을 접목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불교계가 기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박훈:** 불교계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 리터러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단계는 기본적인 AI 활용 능력을 익히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이해를 포함해야 한다. 2단계는 공동체적 합의와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은 제한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단계는 수행과 깨달음의 촉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불교 AI 윤리선언

▶**사회자:** 각 종교계는 AI의 발전 방향성과 사용 방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보일 스님:** AI는 이미 인류 역사에서 유례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AI는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 결과 왜곡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온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AI 논의와 긴밀히 연결된다. 불교는 본래 자아라는 실체가 없다고 가르친다. 하지만 마치 AI가 자아를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불교계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계하고, 균형 있는 윤리 담론을 선도해야 한다.

'불교 AI 윤리선언'은 불교적 가치와 세계관에 기반한 적극적 원칙을 담아야 한다. 예컨대 'AI는 수행의 도구로서만 활용된다', 'AI는 자비와 상호 의존의 가르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AI는 인간 공동체를 해치지 않고 공존을 증진해야 한다' 같은 원칙이다.

▶**지승도:** AI 윤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안에 어떤 앎을 담을 것인가'이다. 불교 전통은 바른 앎[正知]을 강조한다. 따라서 '불교 AI 윤리선언'은 'AI 안에 바른 앎을 심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아야 한다. 불교 논리학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AI 학습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화행:** '불교 AI 윤리선언'은 종단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발전해야 한다. 윤리선언은 AI가 인간 공동체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공존과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선언은 국제적 협력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박훈:** 앞서 언급한 AI 활용 방식과 같이 단계적 합의와 보편적 지침이 담겨야 한다. 1단계에서는 AI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상담이나 교육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반드시 스님의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2단계에서는 AI를 포교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교적 가치와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불교계가 사회적 윤리 논의에 참여한다. 불교적 가치, 즉 자비와 상호 의존, 무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의 AI 윤리 규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AI와 불교' 논의 이어지길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일 스님:** 앞으로 AI와 관련해 나름의 책임감으로 역할을 찾고, 더 지혜로운 생각들을 모아내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

▶**이화행:** 인류사적 패러다임 전환을 맞아 불교도 AI와 더불어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지승도:** 불교계가 기술과 과학 발전을 받아들이고 접목한다면 불교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박훈:**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들어 내기에, 수행·학술적 측면에서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참여와 도약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자비의 빛 생명의 빛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
11월 1일(토)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오전 10시: 개막 컷팅식
오전 11시 특별강연 산불피해, 자연회복의 힘
불교 산이름 환경 퀴즈
오후 2시: 환경 콘서트 불자가수 미스트롯 별사랑
아름다운 하모니 LMB싱어즈, 환상적인 빛 빛볼무 비슬팀
스님들의 연주 블루로터스, 법룡사 나라연합창단
10시~5시: 환경체험부스 자연의 차향 특별 부스
플라스틱방앗간, 양말목 재활용, 멸종위기동물가면, 바다유리 키링만들기
EM무료나눔, 재활용 알기, 인생 네컷, 생명소원등 발원 즐거운 체험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강남구 일원본동 BTN불교TV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AI전법에 함께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7545-4577
거 사 합 창 단 단장 010-3860-4258